

2024 새해 이렇게

이상의 합평군수

# 합평만 '해양치유지구' 추진...사계절 생태관광지로



### 일반산단 추가 조성해 모빌리티·데이터 산업 등 첨단 산업 기반 마련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저점단지 구축...스포츠타운·야구전문타운 확장

"합평 자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굿직굿직한 기반시설을 유지해 '사계절 생태관광' 중심지로 탈바꿈하고, 빛그린산단을 기반으로 한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상의 합평군수는 광주일보와 최근 가진 새해 인터뷰에서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구체적인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 군수는 최근 전남도로부터 1조8000억원 규모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끌어낸 성과를 들며,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할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올해 생태관광과 빛그린산단 주력 산업 등 미래 지역발전 비전사업을 기반으로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내실 있는 실속 행정을 이룰 것을 다짐했다.

합평군은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자원을

지닌 합평만 일원을 '해양치유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 일대에서는 해안도로와 야간 경관 보행로를 마련하고, 해양 레저 복합단지-해양수머드 치유센터-어촌 먹거리 테마파크 등을 핵심 시설을 조성한다.

국립축산자원개발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축산업 전주기 산업화 거점 단지를 구축할 방침이다. 전남도와 협업을 통해 축산연구 집적화 단지와 축산기자재 산업화 단지를 함께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주민 이주 대책을 세우고, 이들을 위한 생활 안정을 꾀할 예정이다.

합평 자연생태공원 일원에는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센터 유치 추진한다. 공공 승마장과 반려동물 공간, 한우테마파크 등 방문객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충족할 관광 시설을 함께 세울

계획이다. 생태를 기반으로 한 합평 역점 산업을 키워내기 위해 스마트팜(첨단농장)과 바이오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한다.

이들 시설은 자원순환형 정보통신기술(ICT) 농축산업 기반을 지속해서 확대할 핵심 시설이 될 예정이다.

이 군수는 종합스포츠타운과 야구전문타운을 확장해 스포츠 산업 기반을 강화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합평 엑스포공원 안에 에듀테인먼트 키즈 카페와 추억 공작소, 황금박쥐 생태관 등을 올해 안에 새롭게 조성할 것"이라며 "합평을 사계절 생태관광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평군은 빛그린산단 조성 이후 일반산단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광주 미래차산단 조성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이동) 산업, 데이터 산업 등 첨단산업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자는 것이다.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신규 조성하는 산업 단지를 통해 우수한 청년 인력을 이끌어 인구 1만 명 이상 신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달 현재 합평군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의 40%를 넘었다. 이들의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10% 확대하고, 동절기 경로당 부식비 추가 지원, 경로당 의무보험 일괄가입 및 전기·가스 안전점검 등 노인복지 시책을 펼친다.

청소년 복지 부문에서도 합평군 인재양성 장학금을 확대해 성적 우수장학금과 학업 장려금을 별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군수는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층이 지역에 애착을 두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며 "청년 공동체와 청년 마을 조성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지원을 지속해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늘리고,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인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할 방안을 소개했다.

이 군수는 "어려운 가운데도 고민과 정성을 다 한다는 '만강혈성'(滿腔血誠)의 자세로 일하고자 한다"며 "60여 공직자와 함께 노력을 다해 합평의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합평=한수기 기자 hsy@kwangju.co.kr

## 강진군, 반가운 아기 울음소리 끊이지 않네

### 연초 5일까지 7명 태어나 월말까지 14명 추가 탄생 예정 산후비용·용품·영양제 지원 등 임신·출산 친화 정책 성과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강진군에서 새해 첫 달에 7명의 새 생명이 태어났다.

강진군은 이달 1일 첫둥이 울음소리가 들린 이후 첫 달에 6명이 더 태어나 총 7명의 신생아 나타났다.

이달 말까지 추가로 태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는 14명이다.

지난해 1월 10명이 태어난 것에 비하면 새해 벽두 신생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강진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54명으로, 전년 93명보다 66% 증가했다.

강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세까지 월 60만 원을 지급하는 육아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준비 용품 지급 등 다양한 임신·출산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 밖에도 임신부에게는 임신부 연산제·철분제, 임신부 초음파·기형아 검진비(각 최대 6만원), 출산용품(1인당 10만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출산한 산모에게는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



강진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새해 태어난 신생아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 <강진군 제공>

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2주) 또는 산후조리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영양 보충 식품 등을 지원한다.

강진군에 살며 첫 임신을 계획 중인 예비부부와 혼인신고 3년 이내 부부에게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비를 준다.

임신이 어려운 부부에게는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이달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부·신생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존 100만원이었던 산후조리비 지원금액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금액과 함께 154만원으로 인상한다. 임신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임신부 안전띠 대여사업은 새로 추진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출산과 육아를 위한 촘촘하고 다각적인 정책 지원으로 더 많은 부부들이 강진에서 행복하게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지방소멸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 나주 노인 일자리 465개 늘리고 급여 확대

### 올해 4개 분야 3805명에 일자리...공익활동형, 전년보다 2만원 ↑



나주시지역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도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시가 지역 어르신의 활기찬 노후 활력소 제 공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나주시는 올해 읍·면·동 20곳과 사업 수행기관 6곳에서 4개 분야 사업을 통해 어르신 3805명에 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자리 수는 전년보다 465개 늘어난 규모에 사업비는 162억원이 투입된다.

읍·면·동을 비롯해 동부노인복지관, 중부노인복지관이 주관하는 직접 수행 사업과 나주시니어클럽, 나주시노인복지관, (사)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사)도움인복지회 등 수행기관 4곳에서 사업을 나눠 추진한다.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 보수는 월 30시간 근로 기준, 전년보다 2만원 인상한 월 29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은 노인 참여자 역량에 맞춘 지역 사회 돌봄에 중점을 뒀다. 월 60시간 근로 기준 전년 대비 4만원 인상된 63만4000원을 지원한다.

운명대 나주시장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통한 소득 창출과 사회적 관계 증진, 활기찬 노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를 비롯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화순 원예시설 현대화

### 중소규모 농가 이달까지 신청

화순군은 이달 말까지 '2024년 중·소규모 원예 농가 현대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소규모 농가의 생산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낡은 시설을 개보수해 시설원예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화순군은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사업'과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 사업'에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시설원예 농가 현대화는 1년 이상 화순군에 사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재배면적 1만㎡ 미만 농가 대상으로, 친환경 농가와 재해 피해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사업 대상자에 선정되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관수·관비, 환경 관리, 무인 방제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은 전남



화순군 보조사업으로 신축한 온실. <화순군 제공>

도에 농업 경영정보기 등록된 원예 특작 작물 재배(희망) 농업인이 대상이다.

원예·특용작물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등 재배 관련 시설과 기기 구매, 특화

작목 중근·묘목 구매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하세요"

### 다음달 23일까지 접수...세대당 60만원 상당 지역화폐

장성군이 다음 달 23일까지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세대당 1명이 60만원을 받는다. 장성군은 오는 4월부터 지역화폐로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 임업 경영체를 등록해 종사 중인 경영주다.

지난해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넘었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살거주 중이면서 세대 분리

한 자 등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하려면 신청서와 이행서약서, 경영체등록 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오는 2월23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내면 된다.

장성군은 자격요건 확인과 심의를 거친 뒤 오는 4월부터 수당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수당은 60만원 상당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1세대당 1명만 받을 수 있다. 부부면 각 경영체 경영주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업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장흥군, 장애아동에 매월 6만원 수당

장흥군은 이달부터 장애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사는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장애아동수당을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이다.

장흥군은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하나로 전국에

서 처음 '장애아동수당 미수급자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지난해 8월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다.

교육·의료비 부담이 큰 장애아동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장애아동수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

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6만원의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애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장애아동 가구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 담양군, 매주 화요일 야간 민원실 운영

### 23일부터 등·초보 등 발급

담양군이 오는 23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

야간 민원실은 평일 운영시간에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다.

야간 민원은 군청 민원관에서 볼 수 있다. 등·초

본, 인감 등 민원서류 발급과 여권 신청, 교부 처리를 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야간 민원실 운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권 발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되지 않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등이 겪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간 민원은 군청 민원관에서 볼 수 있다. 등·초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